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6호 【루계 제25705호】 주체106(2017)년 7월 1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5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4일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은 가장 위력한 불패의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토론회가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 영국, 스웨리예, 벌가리아, 에스빠냐에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도이췰란드 프랑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마르쿠스 뢰들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력사적계기로 되였다.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에는 후계자를 잘못 만나 부패변질되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위업을 말아먹은 당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다.

오늘의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뚜렷이 증명하고있다. 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을 갖추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기에 조선인민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머지않아 통일되고 부강한 나라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우리 당을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불패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지닌 가장 위력한 당인 조선로동당은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으로 길이 번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스카르 윌레비는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가 없었더라면 조선은 날로 우심해지는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침략의 희생물이 된 나라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였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해 그대로 계승되고있다, 선군정치의 위력은 조선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인민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벌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 류드밀 꼬스따디노브 등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으며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반제자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스빠냐 마드리드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미겔 비반꼬와 성원들도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당을 명실공히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이께서 당건설분야에 쌓으신 업적은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스웨리예, 영국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하를 뒤흔드는 천출명장의 담력과 배짱

국제사회의 경탄의 목소리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조선인민을 잘못 보았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지만 공화국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연구개발하였을뿐아니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다.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와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조선의 평화적발전을 미국은 더는 가로막을수 없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여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가 발표한 성명내용이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천하제일명장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적대세력들의 갖은 발악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는 우리 조국에 대한 경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각하는 천하를 뒤흔드는 담력을 지닌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미국에 핵선제타격을 경고하신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것은 세계를 깜짝 놀래웠다.

수세기동안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강권과 전횡을 일삼아온 《유일초대국》인 미국에 대해 감히 본토타격까지 공개한 나라는 아직 없었던것이다.

이 선언은 장장 수십년을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을 끝장내고야말 총결산의 의지라고 할수 있다.

만약 조선과 미국사이에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조선이 승리하리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기네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은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은 이번에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 핵무기보유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미국은 머지않아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야말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정의의 로씨야당 나호드까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대고 제할소리를 다하는 나라는 오직 조선뿐이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대조선《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하였으나 조선의 원칙적이며 강경한 립장에 절절매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담력과 배짱은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공세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성전의 진두에는 천출명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두리에 전체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어 조선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기도를 버려야 하며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로 나와야 할것이다.

몽골문화대학 학장은 지금 온 세계가 조선을 주시하고있다,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미국의 강권과 위협에 맞서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있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특출한 정치실력,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군사전략가로서의 풍모는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더욱 전변시켜나가신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담보되고 조선에서는 날에날마다 놀라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천출위인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키쇼레간지지부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드팀없이 이끌어나가신다.

조선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는 그이를 전체 조선인민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서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나라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강원도정신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비약창조의 불길속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 및 중량레루생산 높은 실적 기록

온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하고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끓어넘치는 속에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2.4분기 주체철 및 중량레루생산계획을 각각 100.6%, 133.4%로 빛나게 완수한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계획수행기간 철강재생산에서 자랑할만 한 높은 실적을 련이어 기록하였다. 산소열법용광로에서는 지난해 200일전투때의 일최고생산실적보다 더 많은 주체철이 생산되고 중량레루생산공정에서는 6월에 지난 20여년간 있어보지 못한 월최고생산실적을 올리였다.

련합기업소에서 확대되고있는 철강재증산성과는 우리 당의 굽힘없는 공격정신을 만장약하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해 질풍노도처 내달리는 황철로동계급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 황철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굴지의 철생산단위들간에 사회주의증산경쟁을 벌리도록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준 당의 기대에 높은 증산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총결기해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에 파견된 당지도소조 성원들은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과 합심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도록 대중을 힘있게 떠미는 조직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모든 전투원들이 철강재증산투쟁이 곧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불굴의 신념을 만장약하도록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들이대면서 주체철과 강철, 압연강재생산을 높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지난 2.4분기간 련합기업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투쟁본때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용광로직장과 조강직장을 비롯한 기본생산단위들과 보장부문에서 맡겨진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졌다.

용광로직장에서 자랑찬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곳 주체철생산자들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얼마전에 진행한 로보수전투과정에 공무부문을 비롯한 여러 단위 전투원들과 힘을 합쳐 나흘은 걸려야 할 작업기일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비상한 속도를 창조하였다. 이들은 련이어 로운영에 필요한 모든 원료, 부원료소비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매일 여러 차지의 쇳물을 성과적으로 출선하였다. 전세대의 투쟁전통을 이어 주체의 붉은 쇠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용해공들의 비상한 혁명적열의속에 지난 6월 24일 산소열법용광로에서는 조업이래 출선량에서 최고실적이 기록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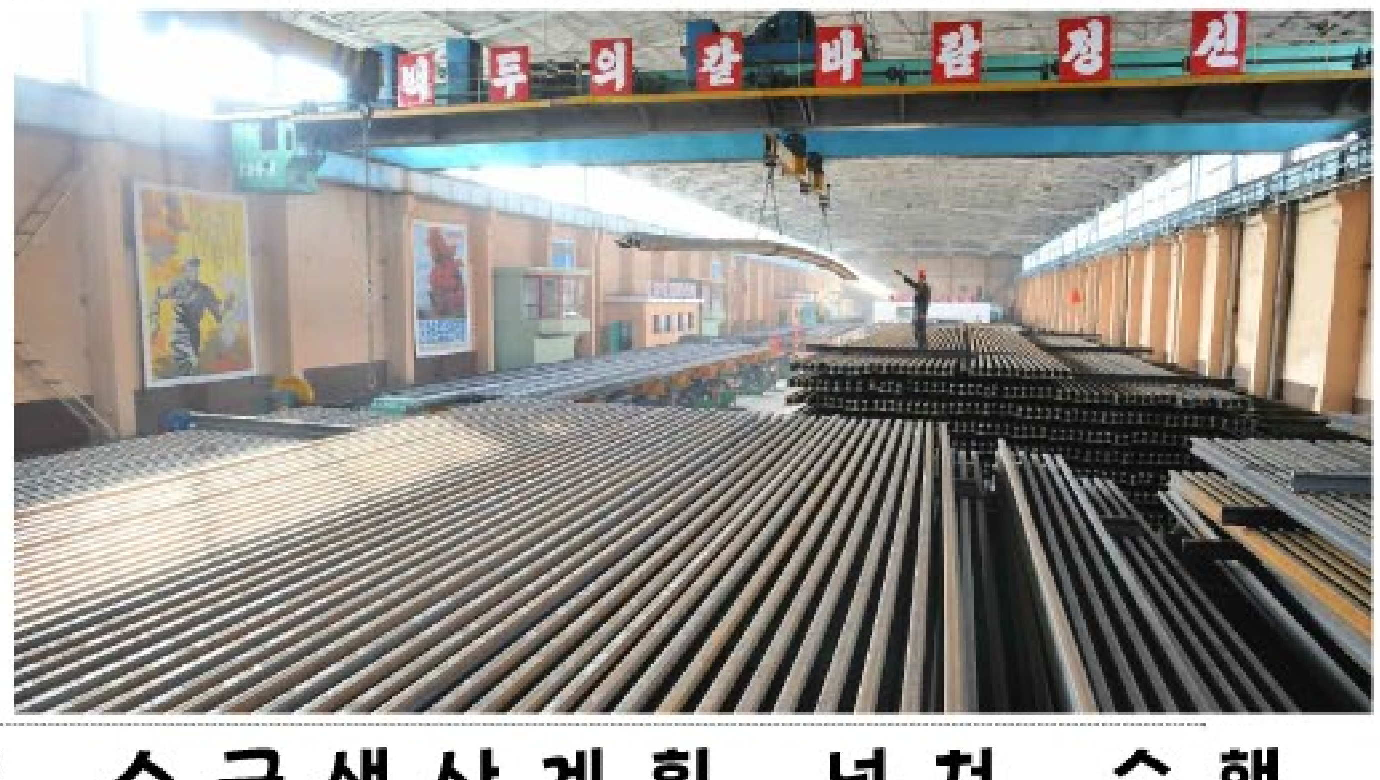
조강직장에서도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6월에도 철강재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압연공들의 혁명적열의가 더욱 고조되여 생산적앙양이 일어났다.

이곳 직장의 오랜 기능공들은 중량레루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교대가 따로 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중량레루생산성과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오랜 기능공들과 압연공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결과 직장에서는 6월에 중량레루생산실적이 지난 20여년만에 최고수준에 도달하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주체철과 중량레루생산에서 비약적혁신이 창조되는 속에 강철직장에서도 국산화된 전극에 의한 강철생산량을 최단기간에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기본생산단위들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증산의 숨결에 활력을 더해주기 위해 떨쳐나선 롤가공직장과 가스발생로직장, 용수관리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기세도 좋다. 이들은 철강재생산에서 익측이 따로 없다는 불같은 자각과 전선에 탄약을 보장한다는 애국의 일념안고 압탄과 가스생산공정을 비롯한 모든 계통들에서 크고작은 설비들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산소분리기2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높이 용광로의 주체철생산량을 최대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이들은 설비점검보수를 앞세우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설비들을 정상가동시켜 산소열법용광로에 질좋은 산소를 원만히 보내주고있다.



경제전략목표수행에서 금속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철과 강철, 중량레루생산으로 들끓는 현장들에는 지금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 직맹 및 녀맹예술선동대가 전개되어 강철전사들의 심장마다에 격동의 불을 달아주고있다.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쥐고 망간철을 자체로 생산할수 있는 토대도 훌륭히 꾸리고있다. 이미 선별계통을 비롯한 모든 공정을 원만히 갖추었으며 시운전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극악무도한 제재소동에 미쳐날뛰는 적대세력들의 머리우에 주체의 쇠물폭포를 련이어 쏟아부을 멸적의 각오를 만장약하고 필승의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황철로동계급의 전투적기상에 떠받들려 철강재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지원철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강원도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소식에 접한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장마철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광산을 비롯하여 장마철기간에 큰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부문과 단위들에서 장마철생산대책을 면밀히 세우게 하고있다.

특히 비바람과 큰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깐깐히 따져가며 미리 작전하고 실정에 맞게 피해막이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시, 군들에서 비바람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도안의 모든 시, 군책임일군들이 큰물과 산사태가 날수 있는 지역들을 돌아보고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주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벌려 장마철기간에 살림집들에서 폭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농업부문에서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시, 군들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농경지들이 큰물에 의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와 물도랑을 새로 정비하며 배수양수설비들을 만가동시킬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농작물들이 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원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언제와 수문들을 제때에 보수정비하여 발전설비와 수력구조물들이 큰물이나 벼락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송배전단위들에서도 철탑과 전주, 송전선과 변전설비들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면밀히 해나가고있다.

원산시와 안변군, 천내군을 비롯한 시, 군안의 체신부문에서는 통신선로들에 대한 보수와 통신까벨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여 그 어떤 큰물에도 통신을 보장할수 있게 해나가고있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원산철도분국에서도 장마철기간에 갱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막장들에 뽐프와 배관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과 철길로반과 철다리를 비롯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소금생산계획 넘쳐 수행

온천청년제염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공격전에 떨쳐나선 온천청년제염소의 일군들과 제염공들이 소금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6월 19일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111%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의 소금생산실적을 기록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금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초식품일뿐아니라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널리 쓰이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뜻깊은 올해의 소금생산계획을 상반년안으로 끝낼 목표를 세운 제염소에서는 일군들이 한개 작업반씩 맡고나가 제염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소금생산전투를 힘있게 조직전개하였다.

일군들부터가 5정보에 달하는 소금밭을 맡고 맹렬한 생산전투를 벌리며 생산자들의 열의를 더욱 분발시키였다.

선전선동수단들이 총동원되여 전투분위기는 날을 따라 고조되고 생산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도 개선되여 작업장마다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였다.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는데 생산장성의 예비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소금생산을 밀고나가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강이 련접되여 염도가 낮은 바다물이 기본인 불리한 조건에서 염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생산량을 높여나갔다. 특히 유리한 날씨조건에 맞게 저류지, 지장지의 면적을 확장하고 증발지들에서 되돌이과정을 거듭하여 단위시간당 물증발량을 높여나갔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찌는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전투에 자신들의 애국의 땀과 노력을 다 바쳐나갔다.

생산제2작업반 반장 최진현동무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소금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작업반이 제염소적으로 제일먼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끝내는데 기여하였다.

일군들도 맡은 소금밭관리를 잘하여 백수십t에 달하는 소금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덕천시, 성천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시, 군들에서 나온 소금작업반의 로동자들도 애국의 일념을 간직하고 힘찬 투쟁을 벌려 맡겨진 소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금 제염소의 일군들과 제염공들은 불타는 애국열, 혁명열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더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소금증산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전혜영

주체사상교양과 사회주의강국건설

오늘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31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당 제7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날을 맞이하는것은 매우 의의깊은 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며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성된 혁명의 지도사상이다. 천만군민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여기에 우리의 무진막강한 힘이 있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5(1986)년 7월 1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데서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주체사상교양의 불도가니속에서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이 뚜렷이 확증되어온 긍지높은 년대기이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지리멸렬되었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리 조국이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군사의 최강국, 백두산청년강국으로 우뚝 솟구치고 온 나라에 위대한 혁명정신과 대비약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는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힘있게 다그쳐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주체의 길은 우리 혁명의 백승의 진군로이며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은 주체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나라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굴의 정신력의 강자, 창조의 거인으로 억세게 준비시키고 만리마시대의 새 기적, 새 기록을 안아오게 하는 5대교양도 주체사상교양의 심화발전이다. 주체사상교양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사상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길이 있다는것이 지난 기간의 실천투쟁이 새겨주는 고귀한 철리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천만군민을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키우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한길에서 변함없이 수령을 충직하게 받드는 일편단심은 혁명적수령관을 지닐 때 가장 굳건하고 순결한것으로 되게 된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혁명적수령관을 억척같이 뿌리박게 하는 사상의 정대, 마치가 바로 주체사상교양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곧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이다. 주체사상에는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출위인상이 어려있으며 우리 수령님들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백과전서적인 지침들이 집대성되어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시고 그 요구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고계신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시키고 수령옹위의 길에 한목숨 다 바칠 각오를 더욱 억세게 심어줄수 있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에 대한 학습열풍으로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이끄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수령옹위전, 당중앙옹위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이 맥박치도록 사상교양의 도수를 높여나가는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기에 조선의 결심은 언제나 승리이고 빛나는 실천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천만군민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빛내나가게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전인미답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의 한길로 끝까지 나아가자면 신념이 강해야 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참다운 사회주의사상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가 과학적토대우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사회주의로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주체사상교양이자 곧 사회주의신념교양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세계를 휩쓴 반사회주의역풍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는 생명이고 생활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린것은 주체사상교양의 견인력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적들의 압살을 받아보지 못하고 진정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하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우리 군대와 청소년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려고 썩어빠진 반동적사상문화를 들이밀고있다. 적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위대한 주체사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진 사회주의조선의 우월성을 실생활체험을 통해 깊이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을 절대로 꺾어놓을수 없다.

오늘 수백만 청년대군이 조선로동당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고있는 모습은 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있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력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실증해주고있다.

혁명불변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천만군민이 신념으로 수호하고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천만군민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자강의 창조대전으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기적을 안아오는 신비로운 힘은 자강력이다. 지난날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앞으로도 강국건설의 근본담보는 자력자강에 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주체사상이다. 혁명을 전진시키는 위대한 동력은 자력자강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자강력을 키우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투철한 각오와 의지도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온다.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인민모두를 자력자강의 투사로, 자력갱생선구자들로 존엄떨치게 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우리 인민이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높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 창조기풍은 제힘을 믿고 자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뼈속깊이 간직한데서부터 분출된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시련과 난관은 중첩되였지만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을 자력갱생의 년대기로 빛내여올수 있은것은 사상전의 열풍속에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인 만리마시대에 들어섰다. 온갖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경제재를 단호히 짓부시며 만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면 자강력을 증대시키고 자력자강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길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미친듯이 발악하여도 우리 조국이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으로 위용떨치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보다 큰 승리와 비약이 이룩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자력자강의 혁명정신, 주체사상으로 만장약한 인민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신념이 맥박치는 항일의 연길폭탄정신과 전화의 군자리정신, 천리마시대의 투쟁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에 의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가 점령되게 될 날은 멀지 않았다.

참으로 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 투쟁의 지침이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김 용 일

긴급과업

가물그루터기는 있어도 장마그루터기는 없다는 말이 있다.

가물뒤에 장마가 오기마련인것으로 하여 공업과 함께 농업부문에서 장마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은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위한 절박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마철에 큰물피해를 입는것은 주로 강물이 넘어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물피해를 막자면 무더기비가 쏟아져도 강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강바닥을 정상적으로 파내고 우불구불한 물길은 곧게 펴며 제방뚝을 견고하게 쌓고 보강하며 호안림도 조성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여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히 한 일군을 찾아가시였다. 례년에 보기드문 왕가물이 계속되는 때여서 일군은 그이께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줄로 짐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물뒤에 들이닥칠수 있는 폭우피해를 미리막는것이 급선무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은 긴급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첫째: 전체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이 모든 논밭들을 빠짐없이 돌아보고 사방야계공사, 물도랑정리, 배수장건설, 해안방조제공사 등 큰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것.

둘째: 농촌경리부문에 종사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양수기와 양수설비, 세멘트를 비롯한 큰물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설비자재를 단시일안에 집중적으로 생산보장하는것.

셋째: 각급 정권기관들에서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책임자들의 비상회의를 열고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는것.

넷째: 각급 당조직들이 협동농장들과 공장, 인민반들에 나가 모든 사람들을 큰물피해방지투쟁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리는것.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부 일군들이 하늘이 쨍쨍한데 벌써부터 웬 큰물걱정인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지체없이 전투를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곧 당중앙위원회에서는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회의가 열리였다. 뒤이어 나라의 곳곳에서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가 긴장하게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현지에서 그 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먼저 함경남도안의 여러 군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큰물피해를 받는 덕성군으로 향하시였다.

험준한 산발들과 골짜기들로 이루어진 덕성군은 깊은 오지로서 산이 90%를 차지하고있었고 부침땅이란 산비탈 다락밭이 아니면 하천기슭의 돌밭뿐이였다. 보잘것없던 밭마저도 장마에 많이 류실되여 남아있는것이란 그야말로 돌무성이의 밭 아닌 《밭》이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천기슭에 서시여 한동안 사방을 눈여겨 살피시였다. 소문그대로 돌천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옛날 이 지방의 군수가 도지사에게 하도 자랑할것이 없어서 돌자랑을 했다는 이야기가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였음을 생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군당책임일군에게 수령님께서는 농경지가 적은 우리 나라에서 새땅을 얻어내는것도 중요하지만 강하천정리와 사방야계공사를 잘하여 농경지를 보호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고, 하천에 흔한 돌로 뚝을 든든하게 쌓아 우선 큰물피해로부터 땅의 류실을 막고 논풀이를 대대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천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에 시선을 주시다가 전기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동력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흐르는 강은 물살도 세고 물량도 많은것만큼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덕성군을 다녀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불도젤이며 뜨락또르, 화물자동차를 비롯하여 제방공사에 필요한 수많은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을 보내주시였다. 그 은정넘친 기계설비들과 자재들로 덕성사람들은 150리구간에 보란듯이 방축을 쌓았고 발전소도 일떠세웠다.

눈부신 변화는 덕성땅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함경남도에서만도 7 000여정보에 달하는 농경지에 고인물빼기공사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전후 10여년동안 조성한것의 4분의 1에 해당한 배수능력을 조성하여 큰물피해에 대처하였다.

그후 우리 나라 전반적지방들에서 뜻밖에도 례년에 없이 많은 비가 내리였다. 우리 나라 년평균강수량의 50%에 해당한 량의 비가 여름철 석달동안에 내리는것이 상례였는데 그해에는 그 석달동안에 내려야 할 비가 거의 한달사이에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 폭우로 하여 대동강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여러 강들에는 지난 기간 큰물이 났을 때보다 물이 초당 1만㎥이나 더 흘렀다. 우리 나라 유사이래 처음 보는 큰물이였다.

이 광란적인 큰물도 피해방지를 철저히 한 우리 인민앞에서는 무력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자연의 엄혹한 광란을 이겨내고 그해 같은 경지에서 16%의 알곡증수를 보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충만한 결실이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신념을 지닌 혁명가의 생은 죽어서도 영원히 빛나는 법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혁명가의 값높은 삶은 신념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신념이란 자신이 체득한 사상과 진리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강한 지향이 결부된 사상의식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확신이며 자그마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확고한 결심이다. 한생을 혁명에 바칠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은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다.

신념은 간고하고도 장구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혁명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 그 길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과 시련도 있고 목숨을 내대야 하는 사선의 고비도 있다. 이 모든것을 꿋꿋이 이겨낼수 있게 하는것이 바로 신념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지만 신념이 없는 사람은 일시적인 곤난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게 되며 나중에는 배신과 변절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이 우리 혁명력사가 보여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지갑룡이 도주한것은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잃었기때문이며 김익현과 김봉록이 도주하지 않고 사령부로 돌아온것은 풀을 우려먹으면서도 신념을 고수했고 덤불속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면 그 순간에도 자기들은 죽지만 혁명은 승리한다는 신념을 그대로 간직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 서술되여있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절대로 굽히지 않고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가려는 굳은 신념, 이것이 혁명가의 징표이며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신념은 혁명가로서의 값높은 삶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다.

신념으로 하는것이 혁명이고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이다. 혁명가가 신념을 잃으면 정신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같다. 혁명가의 삶은 혁명적신념에 의하여 빛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은 간악무도한 강도 일제와 맞서싸우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승리에 대한 드놀지 않는 신념을 지니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굴함없이 투쟁하였기에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늘도 항일혁명선렬들은 주작봉마루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이며 신념은 혁명가의 제일생명이라는 철의 진리를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혁명적신념은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정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진로를 관가리하는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며 승리만을 떨쳐올수 있은 근본비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해왔기때문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명 주 혁

연백벌이 전하는 이야기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걸으신 포전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팔순이 넘은 고령에도 공장과 농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주체68(1979)년 9월 어느날이였다.

연백벌을 찾으시여 풍요한 전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벼이삭들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무슨 품종을 심었는가고 물으시고 그 품종은 목도열병에 잘 걸리고 비바람에 쉽게 넘어지기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친히 이곳에 심을 좋은 품종들을 선정해주시였다.

일군들은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오래도록 농사를 해온 자기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까지 이렇듯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비범성이 가슴을 울렸던것이다.

그들의 감탄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갔다.

연백벌농사에서는 논물갈이를 잘해주는것이 특별히 중요한데 올해에는 어떻게 하였는가고 다시금 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백벌은 바다를 가까이하고 있기때문에 다른 지방과 달리 논물갈이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벼가 도열병에 걸릴수 있다고, 이것을 비유하여 말하면 사람이 여름에 솜이불을 쓰고 자는것과 같다고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몇해를 두고 시험해본데 의하면 논물갈이를 자주 해주는것이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며 무연한 벌판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잠시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아직도 무더기비가 내리면 논들이 큰물피해를 받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장마때면 논들이 물에 잠겨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있다고 그이께 사실그대로 말씀올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큰물피해를 막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자면 간석지에 바다저수지를 크게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이윽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다저수지를 만들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거기에 물을 채워넣기때문에 논들이 물에 잠기지 않을뿐아니라 가물이 들어 물이 모자랄 때에는 거기에 잡아둔 물을 퍼서 쓸수 있기때문에 결국 큰물피해도 막고 가물피해도 막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순간 일군들은 눈앞이 확 트이는것만 같았다.

정말 바다저수지를 만들어놓으면 연백벌농사에서 애를 태우던 큰물피해를 영원히 가실수 있을뿐아니라 물문제도 원만히 해결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었던것이다.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연백벌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일깨워주시고나서 흙깔이에 필요한 소형레루와 광차 그리고 물거름탕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겠다고 사랑의 약속까지 하시였다.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연안군의 논면적은 얼마이고 깊이갈이를 할수 있는 《풍년》호뜨락또르는 몇대인가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수천정보나 되는 논을 깊이 갈자면 모자라겠다고 하시면서 다음해에 황해남도에 뜨락또르를 많이 주되 그중에서도 연안군에 선차적으로 보내주며 기름도 떨구지 말고 대줄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후 연백벌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모든 영농공정을 자기 고장의 실정에 맞게 착실히 하여 나라의 위력한 곡창지대로 전변될수 있었다.

본사기자 전 광 남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전승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령도업적교양에 큰 힘을

토산군 양사협동농장 제1작업반 당세포에서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당세포에서는 농장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농장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쉴참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농장원들에게 해설하도록 하고있다.

김매기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농장원들과 마주앉은 당세포위원장은 멀고 험한 자기들의 농장에까지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에 대하여 감동깊게 해설해주었다.

농장원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보답할 충정의 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그날 김매기에서 높은 실적을 안아왔다.

당세포에서는 선동원들과의 사업도 짜고들어 령도업적교양의 실효를 더욱 높여나갔다. 이 과정에 작업반은 영농공정별전투에서 언제나 앞장서게 되였으며 마음의 변모를 일신시키는데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로동통신원 리 재 남

당에 대한 신뢰심은 일심단결의 기초

우리 조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선 오늘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은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온 나라의 축복을 받은 국방과학전사들의 심장마다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목소리도,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경축하는 대회장들에서 터져나온 격찬의 목소리도 조선로동당 만세, 만만세이다.

천만군민이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바로 여기에 그 누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심은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기초입니다.》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백두산대국의 제일국력이며 그것은 다름아닌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조직적단합이나 사상적결합이기 전에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철석같은 믿음으로 굳게 뭉친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가장 간고한 혁명의 천만리길에서도 우리 당과 혁명대오는 불패의 통일체로 강화될수 있었고 지금처럼 최악의 역경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이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는것이다.

당에 대한 신뢰심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함께 해나가는 불패의 단결의 원천이다.

일심단결이란 말그대로 하나의 마음으로 한덩어리로 뭉치는것이다. 이러한 단결을 실현하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초가 당에 대한 신뢰심이다.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덕망, 인품에 완전히 매혹되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지니였기에 항일대전의 불길과 전화의 불비속에서도, 전후 빈터에서도 우리 인민은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를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든 항일혁명투사들과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 장군님을 따라 피눈물의 바다와 전대미문의 고난의 시련속에서도 굴함없이 선군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도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신뢰심이 끓어번졌다.

오늘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온 누리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열화같은 정, 사생결단의 애국헌신에 온넋으로 매혹된 우리 천만군민은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혁명하는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심심산골에 홀로 있어도, 전쟁의 난파도가 밀려와도, 참혹한 대재앙이 닥쳐와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원수님만을 절절히 그리며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드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강압이나 강요로써는 이런 참다운 단결의 대풍모를 펼쳐놓을수 없다.

어디서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이 오늘 병진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전략적핵강국건설 구상을 드팀없이 완전무결하게 실현해나가고있는것이다.

당에 대한 신뢰심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와 전진의 보폭도 실천도 같이 해나가는 위대한 단결의 초석이다.

일심단결은 사상적순결체인 동시에 행동의 통일체이다. 당의 의도대로만 천만이 하나같이 움직이고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집행해나간다는데 우리 일심단결의 특징이 있다.

우리 인민은 령도자와 운명도 하나이고 발걸음도 하나이다. 그가 누구이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뿌리를 잇고 한걸음을 걸어도 당이 정해준 침로따라 나아가는것은 우리 당이 제일이고 당이 가리키는 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고부동한 신념의 분출이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최상의 존엄과 영광을 누려나가는 나날에 원수님에 대한 신뢰심을 억척같이 간직하였기에 우리 인민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고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며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가고있다. 전당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원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온 나라가 백두의 행군길을 더욱 힘차게 이어가는 모습,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와 전화위복의 기적, 려명신화를 창조하고 수백만 청년대군이 당에서 명령만 내리면 핵폭탄이 되어 침략의 아성, 본거지들을 송두리채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총폭발시킨 화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희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얼마나 신뢰하고 변함없이 따르는가를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당에 대한 신뢰심에 기초한 우리의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최강의 무기이다. 지금 백두산대국의 무궁무진한 국력과 발전잠재력에 질겁한 적들이 야만적인 초강경제재와 썩어빠진 사상문화적침투책동으로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고 민심을 흔들어보려고 획책하고있지만 어리석은 망상이다. 우리의 앞길에 더 포악한 도전과 제재가 막아선다고 해도 주체의 붉은 당기를 우러르며 자기 운명에 대한 굳건한 믿음, 광휘로운 앞날에 대한 신심을 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백두의 칼바람마냥 내달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기상은 더욱 높이 떨쳐질것이다.

유 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제품질제고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검사수단과 방법의 현대화를 이들처럼 내밀자

모란봉구역품질감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전인 주체100(2011)년 모란봉구역품질감독소를 품질감독부문의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하늘같은 그 믿음을 뼈에 새기고 이곳 일군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품질감독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였다. 특히 이들은 수십점의 측정기구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발제작함으로써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기간 당에 기쁨을 드리고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진행된 품질감독부문 측정기구전시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품질검사의 현대화는 곧 검사수단과 방법의 현대화입니다.》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고 검사의 시간성을 보장하는데서 검사수단과 방법의 현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품질검사를 현대화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해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악기외형검사프로그람을 놓고보자. 이 프로그람은 기타와 같은 현악기들의 외형화상자료를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신속정확히 갈라내여 결과를 현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종전에 이곳 품질감독원들은 악기외형검사를 육안으로도 하고 줄자를 리용하여 악기의 길이, 너비 등을 하나하나 재면서 제품규격상요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군 하였다. 그러다나니 현대의 악기를 검사하는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비되였다.

소장 최영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악기외형검사수단과 방법을 결정적으로 현대화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였다. 특히 수동적으로 규격에 따르는 지표들을 확인하거나 육안으로 외형을 검사하는것과 같은 재래식방법에서 벗어나 악기의 외형상태를 화상자료화하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분석할수 있는 프로그람을 작성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사실 프로그람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도 아닌 품질감독소에서 자체로 이 일을 해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지난 시기 감독소의 모든 성원들의 콤퓨터실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제품의 질제고사업과 관련한 다매체들도 척척 제작함으로써 현실에서 은을 낸 경험도 있지만 악기외형검사프로그람작성은 그와 대비할수 없는 실력을 갖출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소장 최영선동무는 이 사업을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람을 자체로 개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모든 성원들을 시대가 바라는 실력가로 준비시키는가 마는가를 결정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하였다. 그후 프로그람작성에 조예가 깊은 백진혁동무를 대담하게 믿고 이 과제를 맡겨주었으며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도 해결해주면서 그의 사업을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현악기의 전체길이와 조현길이, 소리럭너비와 울림통의 상, 중, 하너비 등 매 구성요소들의 치수를 화상자료의 자동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갈라내는 프로그람작성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이곳 품질감독소에서는 거듭되는 실패에서 교훈을 찾으며 한치한치 프로그람개발의 길을 개척하여 끝끝내 성공을 안아오고야말았다.

이 일을 계기로 품질감독소에서는 검사수단과 방법의 현대화를 더욱 박력있게 내밀었다. 특히 규격에 따르는 제품의 여러 질적지표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자화하여 나타내고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도 명백히 현시할수 있는 측정기구들을 개발제작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압사랑정도계, 수자식점도계도 그 과정에 개발제작되여 현실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품은 감독소에서는 지난 시기 압사랑의 굳기정도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하지만 그 방법들로는 얼마만한 압력을 가할 때 압사랑이 깨여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수자자료를 규격에 비추어 정확히 판별한다고 볼수 없었다.

크나작으나 나타나는 이러한 오차들을 놓고 제품의 질을 원만히 보장했다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세운 이곳 품질감독소 일군들은 또다시 새 전투에 달라붙었다. 제품의 질에 대한 과학적담보는 오직 하나 검사수단과 방법을 현대화하는 길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그들은 압사랑에 서서히 압력을 가하고 그것이 깨여지는 순간의 압력을 정확히 포착하여 표시장치에 현시할수 있는 기구를 창안하기 위한 두뇌전을 벌리였다. 이들은 측정기구제작에서 나서는 혁신적인 의견들을 부단히 합치고 어느 한 과학연구단위와의 협동연구도 벌려 압사랑정도계개발제작에 성공하였다. 이 기구가 압사랑의 질검사에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왔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크나작으나 다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생산물이 되여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이들은 구역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외장재들의 점도를 수자화하여 나타내는 점도계도 훌륭히 개발제작하여 질검사에 리용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실소비량측정기구, 빵기공률측정기구를 비롯하여 이곳 품질감독소에서 자체로 개발제작한 수십점의 측정기구들이 구역안의 생산단위들에서 리용되고있는데 그 평이 대단하다. 이 단위의 경험을 따라배우려고 각지 품질감독소 일군들이 지난해는 물론이고 올해에도 계속 찾아오고있다는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곳 품질감독소에서는 제품질제고대책월간들을 계기로 구역의 생산단위들에 현대적인 측정기구들을 보다 원만히 갖추어주는 사업도 계속 내밀고있다.

전문과학연구단위도 아닌 품질감독소에서 최근에 이룩된 성과는 품질감독부문 일군들에게 실로 귀중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온 나라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질경쟁을 위한 전초선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품질감독초소들도 과학기술력이 없이는 결코 제구실을 할수 없다.

품질감독사업도 과학기술전이라는 사상적각오를 만장약하고 검사수단과 방법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대담하게 뛰여들어 완강히 실천해나갈 때 시대가 바라는대로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모란봉구역품질감독소 일군들의 사업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다.

본사기자 김 충 성

최대의 속도, 최상의 질

◇ 거창한 비약의 시간표따라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분분초초가 흐르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의 불길속에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질제고에서도 더욱 뚜렷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국가품질감독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년기간 전력, 보건, 식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10여개 생산단위들이 제품인증, 품질관리체계인증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체신, 기계, 철도, 식료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20여개 단위들에서 생산되고있는 수십점의 제품들이 2월2일제품으로 등록되였다.

◇ 최대의 속도, 최상의 질!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 근로자들이 내세워야 할 증산의 기준, 창조의 기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선군조선이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질제고에 대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은 단순히 시간적의미로만 특징지어지는 전투가 아니다. 온 나라 일터의 근로자들이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안아와야 할 기적속에는 최대의 속도라는 곱직곱직한 보폭과 함께 최상의 질이라는 비약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만리마속도, 만리마기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27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신화처럼 솟구쳐오른 려명거리를 보라. 그것은 건설물이기전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의 최대의 속도, 최상의 질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이다. 평양가방공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 곳곳에 일떠선 가방생산기지들에서 생산되는 가방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생산되는 이불 그리고 원산구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구두와 식료품마다에도 황명한 래일을 향해 더 빨리 내닫고 더 높이 솟구치는 우리 조국의 전진의 모습이 비껴있다.

◇ 끊임없이 돌진하고 끊임없이 비약하자.

우리 식의 건설물과 생산물들을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더 많이 만들어내는 길에서는 순간의 답보나 만족도 있을수 없다. 우리가 이어가는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하루하루는 끊임없는 창조와 비약으로 충만된 분분초초이다.

오늘날 현대과학기술과 첨단기술수단들을 떠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제고란 있을수 없다. 일군들은 인민경제계획수행과 함께 원료와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비롯하여 자기 단위의 품질기술적토대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로 부단히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질제고에서 보다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될수 있다.

경쟁속에 발전이 있고 비약도 있다.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 12월15일품질메달, 2월2일제품, 국제적인 품질인증을 받은 공장, 기업소대렬을 계속 늘여나가야 한다.

건설부문에서도 최신설계기술, 앞선 공법과 기술, 선진재료 등 첨단건설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활용해나감으로써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최첨단이며 일본새는 끊임없는 비약이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와 당당히 겨루려는 야심만만한 배짱,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혁신적안목,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부단히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완강한 실천력을 지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여!

목숨보다 귀중한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제품의 질제고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옴으로써 만리마속도로 질풍처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기상을 세계에 뚜뚜히 과시하자.

실적은 인민의 평가속에 있다

부 령 제 지 공 장 에 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자그마한 지방공업공장인 부령제지공장에서 질좋은 종이제품들을 팡팡 생산하고있다.

백색도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필기종이와 인쇄용종이, 표지용종이며 도배지, 포장지들…

학습장만 놓고보아도 소학교용, 중학교용, 대학생용 그리고 학과목에 따라 국어, 음악, 그림, 외국어 등 그 종수와 다양성은 중앙공장제품들에 못지 않다.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이곳 군에서 진행되였으며 다른 지방에서도 이곳 제품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장의 밝은 전망을 그대로 엿볼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고장 제품이라 정답게 불리우는 종이제품들이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의 호평을 받은것은 아니였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설비라야 락후한 쇄목기 몇대가 고작이였고 제품의 질적수준은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었다.

몇해전 지배인으로 임명되여 첫 사업을 시작한 김철수동무는 이 사실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였다.

(자기 군에 종이공장이 있으면서도 다른 지방의 학습장을 자식들의 가방속에 넣어주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는가. 주민들로부터 호평받지 못하는 제품들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가.)

심각한 자책은 공장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색의 낮과 밤으로 이어졌다.

자기 분야에 대한 당정책과 과학기술문헌들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김철수동무는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지금있는 추식쇄목기가 아니라 원통형쇄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지난 시기 백색도를 비롯한 종이제품의 질적측면에서 원통형쇄목기가 가지는 의의를 인식한 여러 단위들에서 이 설비를 생산에 받아들인적이 있었다. 그러나 설비자체가 기대공의 높은 기술기능수준과 책임성을 요구하는것으로 하여 운영시험과정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들은 물론 설계자들까지도 맥을 놓고있었다.

하지만 설비의 기술적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에 기초하여 김철수동무는 이 설비를 받아들이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

해당 부문 연구사들과의 창조적지혜를 합치가며 기술개건전투를 벌려가던 과정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였다. 산골군인 조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자재와 자금을 비롯하여 애로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경험과 숙련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제품의 질은 좀처럼 기대했던 높이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체질화된 제대군관인 지배인부터가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오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였던것이다. 때로는 기계설계원이 되어 도면탁우에서 새날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늘 각종 도면과 기술문건들이 가득찬 볼록한 가방을 들고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고 가정에 저축해두었던 자금까지 설비현대화에 고스란히 바치며 애쓰는 지배인의 헌신적인 일본새는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속에서는 생산품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량심을 바치려는 자각이 강렬해졌으며 맡은 설비에 정통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몰아쳤다.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도 공장현대화를 군의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적극 내밀어주었다.

온 군의 관심과 기대속에 기술개건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 수종고온고농도쇄목팔프생산공정이 짧은 기간에 꾸려졌다. 공장은 종이제품생산에서 종전에 비해 현저한 질적비약을 이룩하게 되였다.

올해에도 이들은 새 학년도를 맞는 군안의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지방의 원료와 자재로 생산한 학습장들을 가슴가득히 안겨주었다.

《민사봉》상표가 붙은 학습장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아이들과 학부형들을 보면서 이들은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실적은 제품을 얼마나 생산하였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안는 인민들의 평가에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심 학 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무궤도전차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기까지

송 도 원 종 합 식 료 공 장 에 서

수요가 높은 질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속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사탕생산공정이 얼마전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았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사탕들은 그 맛이 좋을뿐만아니라 품질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인기를 더욱 끌고있다.

이 자랑찬 성과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식료품들의 질을 발전하는 시대와 나날이 높아지는 인민들의 요구수준에 따라세우기 위해 노력해온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안아온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와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사람들은 보다 다양하고 질좋은 소비품을 요구합니다.》

2년전 공장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관리체계를 생산공정들에 받아들이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였다.

공기조화체계를 실현하고 여러 소독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많은 분석설비 등을 필요로 하는 이 어려운 과업앞에서 누구도 선뜻 시원한 말을 못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식료품들이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좋은 평가도 받고있는데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이 사업을 좀 뒤로 미루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배인 림순희동무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의 기준은 인민의 요구입니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못해낼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배인의 이 말은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다시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겨안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1차목표로 사탕생산공정을 정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을수 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었다. 현행생산을 진행하는 속에서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어놓는 사업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자신을 초불처럼 불태우며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일판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종업원들은 짧은 기간에 공기조화체계를 확립하고 생산현장 여러곳에 자외선소독등을 설치하였다. 분석실에는 항온송풍건조기, 회화로, 무균조작대를 비롯한 10여가지의 설비들을 갖추어놓았다.

그러나 해당 단위로부터 인증을 받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이들은 그들의 요구성을 곧 인민의 비판으로 접수하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가슴마다에 더 깊이 새겨안으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제기된 문제들을 한가지한가지 수정보충해나갔다.

지난 3월 드디여 사탕생산공정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게 되였다. 그 성과로 하여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공정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가지 사탕들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은 공정에서 생산한 사탕인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

사탕생산공정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마음속에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뼈에 쪼아박고 당정책을 자로 하여 투쟁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의 기둥이 더욱 억세게 뿌리박게 되였다.

지금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질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정 경 철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에서

년간 굴진계획 빛나게 완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가는것은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인 청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최후승리를 부르는 장쾌한 승전포성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소식으로 온 나라 강산이 환희로 끓어번지는 속에 고원탄광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이 지난 7일현재 년간 굴진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백두의 칼바람에 몸을 달고 조선혁명의 칠로마라 폭풍처 내달리는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의 장용한 기상을 떨치며 이들이 이룩한 성과는 당의 부름에 결사의 의지로 화답하는 청년맹장들의 영웅적인 창조투쟁, 돌격투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소식에 접한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자신들도 당과 수령이 알고 조국이 내세워주는 시대의 선구자집단이 될 비상한 각오와 열정이 끓어넘쳤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상반년 굴진계획을 끝낸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이들은 지난해에 비해 근 1.5배나 높아진 년간 굴진계획을 올해 7월까지 완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탄광당조직의 지도밑에 돌격대의 초급지휘성원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과 전투조직을 짜고들었다.

20명 남짓한 인원으로 수백m의 년간 굴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혁명의 진군가를 높이 울리며 돌격대원들은 동시에 은떡겡과 승리갱의 두개 막장을 타고앉아 비상히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며 화약에 불이 달린것과 같이 맹렬히 돌진하였다.

전투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갈 불같은 열의가 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쳤다.

탄광의 일군들도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막장에 들어가 동발과 레루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이들의 영웅적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동무는 오늘 굴진계획을 수행하였는가.

이 량심의 물음앞에 자신들을 세워놓고 석수가 쏟아지고 천연암반이 앞을 막아도 오직 굴진계획만을 생각하며 기적과 위훈의 낮과 밤을 이어온 이들의 영웅적투쟁으로 3.4분기 굴진계획은 지난 5월 20일까지 앞당겨 완수되게 되였다.

지난 4일 무진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며 대지를 박차고 솟구쳐오른 주체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단번성공소식에 접한 돌격대원들은 당중앙을 석탄증산으로 결사옹위할 신념의 맹세를 백배하며 총돌격전에 진입하여 3일만에 년간 굴진목표에 승리의 기발을 꽂고야말았다.

지금 이들은 백절불굴의 의지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당의 주체적핵무력건설위업을 자랑찬 성과로 받든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높이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생산에 앞서 중시한 문제

안주시식료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계획수행은 생산단위일군들이 첫째로 관심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생산에 앞서 중시할 문제가 바로 종업원들에 대한 멸사복무기풍이라는것을 안주시식료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실천을 통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2월말 초급당위원장 박봉서동무가 생산과정에 나오는 퇴수를 리용하여 메기양어장을 꾸릴것을 발기했을 때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15년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던것을 성공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때문이였다.

문제로 된것은 이 사업에서 앞장서야 할 일부 일군들이 생산일면만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낯을 적게 돌리고있는것이였다. 생산계획만 하자고 해도 로력이 긴장하다는것이였다.

초급당일군은 이것을 종업원들에 대한 복무관점문제로 보았다.

초급당위원회는 우선 일군들속에 멸사복무관점을 바로세워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갔다.

초급당일군은 지배인 김향숙동무와 함께 기술혁신조 성원들을 데리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녀가신 평양메기공장에 대한 참관을 하였다. 참관을 통해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앞채를 메고나갈 결심을 굳혔다.

메기를 대대적으로 기르자면 먹이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야 했는데 크지 않은 식료가공공장에서 기계설비를 자체로 만든다는것은 헐치 않았다.

스크류가공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였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말들이 오고갔다. 공장에는 그것을 가공할만한 설비가 없었던것이다.

이런 때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기능공들을 계발시켜 자체의 힘으로 해낼 결심을 하였다. 앞으로 꾸려지게 될 메기생산기지가 은을 내게 하자면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어려워도 이 길을 택해야 한다고 보았던것이다.

로동자들속에 들어간 초급당일군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키워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려 그들을 분발시켰다.

공무작업반장 백용남동무가 연마지구를 제작하여 선반에 설치하면 정밀도를 보장할수 있다는 혁신적인 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장자체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하던 스크류를 가공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먹이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내였다. 지난해 공장에서는 새로 꾸려놓은 메기양어장에서 5t의 메기를 생산하여 종업원들에게 공급했다.

초급당위원회는 후방토대를 갖추기 위한 사업도 과학적으로 해나가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다. 높은 과학기술실력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주동적으로 풀어나간것은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이다.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투기간에 수십t능력의 축산물생산기지를 건설할 때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집짐승마리수가 급격히 늘어날것을 예견하여 먹이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때 초급당일군은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의 탄닌을 제거하면 먹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안을 내놓아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놀래웠다.

초급당위원회는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내밀었다.

초급당일군은 수의사 서동성동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피타게 사색하고 실험을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 어느 한 첨가제를 배합하면 탄닌을 제거할수 있다는 방도를 찾았다. 그대로 하니 성공이였다. 하여 축산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종업원들에 대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멸사복무기풍은 돼지, 오리, 닭, 메추리생산기지와 전몰욕상들에 꾸려놓은 남새온실들에도 스며있다. 여기서 생산된 고기와 알, 남새를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있다고 한다.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이것이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멸사복무관점이다.

지난해 정초에 있은 일이였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공장의 어려운 생산조건을 저들면서 종업원들에게 례탑 생일상을 차려주는것을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초급당일군은 종업원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것은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멸사복무관점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다. 그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열리고 이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졌다.

부업작업반에서 일하고있는 리명일동무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그가 결혼식을 하게 된다는것을 알고는 공장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결혼상을 차려주고 새 집도 마련해주어 당의 고마움을 심장으로 느끼게 하였다.

또한 대중을 발동하여 부업기지에서 4모작까지 하게 하여 부침땅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였다. 공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여 종업원들이 그 덕을 보게 하였다.

생산을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생활을 먼저 보는 일군들의 복무관점은 대중을 높이 세운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에로 떠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지난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총정의 70일전투목표와 20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끝내면서도 메기양어장과 축산기지를 건설했다.

얼마전 공장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

종업원들에 대한 멸사복무를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수행에로 대중을 떠밀어주는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여기고 힘을 집중하여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게 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손 영 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또 하나의 멋쟁이공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진 치과위생용품공장을 돌아보고

우리는 지금 새로 건설된 치과위생용품공장앞에 서있다.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 멋쟁이공장이다.

크지 않은 부지에 생산건물과 사무청사, 편의건물 등이 집약적으로 건설되고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성격에 맞게 붙인 흰색과 록색타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건축물의 미를 한껏 돋군다.

생산건물벽에 부착된 백학을 형상한 공장마크도 이채롭게 눈길을 끌고 앞마당에 조성한 잔디밭이며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나무들도 공장의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하지만 이런 정경에 앞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세계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행로우에 나날이 꽃펴나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더더욱 높아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듯싶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공장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진정 년간 수천만개의 치약, 함수약, 각종 치과위생도구들을 생산하는 능력이 큰 치과위생용품종합생산기지가 이 땅우에 어떻게 솟아올랐던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지난 6월 공장을 찾으시여 예로부터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공장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을 풀게 되였다고,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민들의 위생과 건강에 절실히 필요한 치과위생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일떠세우실 구상을 안으시고 그토록 마음쓰신 그이이시였다.

하기에 천사만사로 중대한 국사가 겹쌓여있었지만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수시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생산설비들을 일식으로 마련해주신것을 비롯하여 공장건설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낮과 밤을 우리 정녕 다 알고 있었던가. 이렇듯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받들려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돐이 되는 뜻깊은 그날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멋쟁이공장이 또 하나 일떠섰다고, 앞으로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좋다고 하는 치과위생용품들을 다 개발생산하게 하자고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공장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로정을 따라섰다.

번듯하게 꾸려진 통합생산지령실에서 걸음을 멈춘 우리는 대형액정현시판에 현시된 치과위생용품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주의깊게 바라보았다. 치약쥬브생산공정, 배합 및 숙성공정, 함수액생산공정, 정수생산공정 등 공장의 중요생산공정들의 실시간동작상태를 손금보듯 환히 알수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인 김경혁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대학연구집단은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내걸고 고심어린 노력끝에 생산공정의 자동조종체계, 생산관리체계, 경영관리체계로 구성된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시각적효과를 생동하게 나타낼수 있게 생산공정의 자동조종체계의 대면부를 현장조건그대로 설계함으로써 생산실태를 한눈에 장악하고 조종의 효과성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설비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고장진단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통합생산지령실에 들리시여 김경혁동무의 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품질관리, 전력관리, 환경관리, 고장진단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의 감시 및 자동조종체계를 잘 세워놓았다고 하시면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결과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립체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비범한 예지로 이들이 구축한 통합생산체계에 대하여 순간에 꿰뚫어보시고 이 공장에서 인민들에게 차례질 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올 그날을 그려보시는듯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어려온다는 연구사의 격정의 토로가 우리에게 준 여운은 참으로 컸다.

이어 치약생산공정을 돌아보며 우리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사출기, 6색인쇄기, 제판기, 어깨사출기 등을 거쳐 생산된 치약쥬브들에 원료배합장에서 진공배합되어 숙성된 치약이 자동주입되고 봉합된 다음 개별곽포장, 지함포장되여 제품창고로 입고되는 치약생산공정의 모든 요소들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여있었던것이다.

콘베아를 타고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질좋은 치약들이 포장되여 잠간사이에 무드기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후더워올랐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인가. 원쑤들이 비렬하고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에 매여달리고있지만 자력자강의 위력은 억센 힘을 뻗치며 인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줄 가슴후련한 광경을 펼치고있었다. 과학기술을 틀어쥔 우리의 무궁무진한 힘을 다시한번 의식하게 한 그 주인공은 누구들인가. 평양기계종합대학의 연구집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는 많은것을 알게 되였다.

이번에 치약생산공정에 새로 도입된 설비들만 해도 헤아릴수없이 많았다.

90°선회장치, 어깨사출경사콘베아, 어깨사출자동공급퇴출기, 180°선회장치, 치약쥬브분리장치…

그중에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안고있던 설비들도 적지 않았고 참고할만 한 문헌자료조차 없는 설비도 있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집단주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며 설계를 하나하나 완성하였고 사장되여있던 설비를 새것처럼 살려 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실현에 쓸모있게 리용하였다.

어느 한 기계공장의 로동계급도 자기들의 재능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대학의 연구집단이 설계한 설비들을 손색없이 제작완성함으로써 국산화비중을 훨씬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과학자, 로동계급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슴배인 생산공정을 바라볼수록 당에서 결심하면 그 무엇이나 척척 만들어내는 슬기로운 조선인민의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있어 온갖 적대세력들의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은 물거품처럼 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은 강성번영의 궤도를 따라 끝없이 승승장구하리라는 확신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계속하여 우리는 약제와 정수, 향료 등을 가지고 만드는 함수액생산공정과 사출, 성형, 세척으로 이루어진 함수약병생산공정, 각종 치간실과 솔이 달린 이쑤시개들, 틀이세척솔, 혀긁개, 혀솔 등을 생산하는 생산공정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함수액이 담겨진 용기들이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자동적으로 상표가 붙여진 다음 열수축포장 또는 지함포장되는것이 볼만 하다고, 제품들의 질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평가해주신 생산공정들은 정말 희한하기 그지없었다.

공장의 자랑은 이뿐이 아니였다. 수백개의 태양빛전지판과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하여 조명과 함께 편의시설에 더운물도 보장하고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도 받아들인 이 공장은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된 공장이였다.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과위생용품공장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공장, 자신께서 대단히 중시하는 공장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생용, 치료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치약과 함수약, 이몸과 이발형태에 따르는 치솔을 비롯한 치과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더 많이 늘일데 대한 문제, 치과위생용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연구집단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보장을 잘해줄데 대한 문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원료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등 공장의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직 주신 사랑이 적으신듯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질좋은 치과위생용품들을 인민들에게 떨구지 말고 보장해주어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주시겠다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보고하라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공장일군의 목소리는 뜨거움에 젖어있었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우리 인민들이 그 혜택을 실지 피부로 절감하면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였다.

하기에 지난해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찾으신 그날 당에서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고있는것은 결코 나라가 풍족해서가 아니라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기때문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신것이였다. 또 그래서 그이께서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사회주의보건제도와 같은 사회적혜택속에서 실지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는것이다.

크나큰 격정속에 치과위생용품공장을 돌아보고나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받들려 해마다 일떠선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들이 한눈에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진정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쳐가시는 끝없는 헌신의 이야기들을 합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서사시가 엮어지리라.

우리는 이곳을 떠나기 앞서 김숙영동무를 만나 공장의 밝은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치약만 하여도 10여종에 달하였다. 그중에는 일반치약, 어린이치약과 함께 효소치약, 불소치약, 황경피치약, 피로린산치약, 소금치약 등을 비롯하여 이발의 위생을 보장하고 여러가지 치과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리용되는 기능성치약, 치료용치약들도 많았다. 현재 공장에서 보다 질이 좋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여러종의 기능성치약들과 치과위생용품들에 대한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그는 더 많은 제품들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 지금 온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하는것이였다.

참으로 어머니 우리 당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뜨겁고 보답의 일념으로 들끓는 일터였다.

오늘은 현대적인 치과위생용품공장이 훌륭히 솟구쳐올랐듯이 래일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꽃만같이 펼쳐지게 될것인가.

인민의 행복이 천가지만가지로 더욱 꽃펴날 내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공장을 나서는 우리의 가슴은 격정으로 마냥 설레이였다.

인민을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며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후손만대는 해와 달이 다하도록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명훈
본사기자 조향미
사진 본사기자 김성남

날강도 미제가 계속 무모한 군사적대결망동에 매달린다면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

최근 미제가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면서 남조선영구강점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지난 64년간 서울 룡산기지에 둥지를 틀고앉아있던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8군사령부를 경기도 평택지역에로 이전하는 놀음을 벌려놓고 그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7월 11일 남조선강점 미8군사령부청사를 경기도 평택의 《험프리》기지로 옮긴 미제침략군놈들은 괴뢰정부와 군부의 우두머리들과 늬다리극우보수분자들을 비롯한 숱한 어중이떠중이들까지 불러다놓고 《새 청사 개관식》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이날 남조선강점 미8군사령관놈은 그 무슨 《환영사》라는데서 《총 107억US$의 건설자금이 투자된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해외륙군기지들중 최대규모》이라느니, 《기지이전으로 미군의 방어수준과 전투준비태세가 더욱 향상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희떱게 재쳐댔는가 하면 《한미동맹의 공고성을 과시한 또 하나의 사례》로 된다고 주구들을 추어주면서 기자들에게 기지내부까지 공개하며 허세를 부려댔다.

미8군사령부의 평택이전문제로 말하면 미제가 우리 군대의 장거리포병화력타격이 두려워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한강 이남지역으로 이동전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괴뢰들과 모의판을 벌려놓고 추진해온것이다.

미제는 당시 《현재 수도권을 겨냥하고있는 북의 장사정포는 240mm방사포 200여문과 170mm자행포 150여문이다. 한시간에 5,000발이 넘는 포탄이 인천과 려주는 물론 서울까지 떨어진다. 만약 전쟁이 개시되면 하루동안에 10만명의 사상자가 나올것이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룡산기지를 한강 이남의 평택기지로 옮겨야 한다고 괴뢰들을 다불어댔다.

괴뢰군따위는 죽어자빠져도 제놈들만이라도 살아남아보려는 어리석은 흉심에 따른것이였다.

2013년 박근혜역적패당이 집권하자 미제는 때를 만난듯이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여 미8군사령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부대들을 옮기는 문제에 합의한 후 중대, 대대급단위 구분대들을 은밀히 이동시켰다.

이번에 미8군사령부의 이동으로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들어선 평택미군기지는 2020년까지 건설이 끝나게 되며 그 면적은 무려 1,470만㎡로서 세계최대규모의 해외미군기지로 된다고 한다.

미제가 북침전쟁의 돌격대, 선견대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8군사령부의 평택이전놀음에 대해 크게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며 괴뢰호전광들과 야합하여 한사코 우리와 대결하려 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트럼프 미행정부패거리들이 괴뢰들에게 그 무슨 《안보무임승차론》을 떠들어대며 미제침략군유지비를 올리라고 강박하고있는것도 결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을 더욱 강화하여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조선반도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힘이 교차되는 중요한 전략적거점으로 여기고 남조선에 틀고앉아 전 조선을 강점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제의 대아시아정책목표이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오늘에 와서까지도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죽음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놀음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우리 군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대해 똑바로 알지 못하고있다는데 바로 미국의 비극이 있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우리 군대는 하늘을 뒤덮으며 쏟아져내리는 불우박과 같은 멸적의 일제사격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해버릴것이다.

우리 군대의 제1차적인 타격목표로 되여있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기지들은 평택에 있든 부산에 있든 우리 장거리포병들의 무자비한 섬멸적화력타격을 절대로 피할수 없다.

미제침략군기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 군대의 화력타격효과는 더욱더 높아질것이다.

미제호전광들은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남조선영구강점기도를 버리고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위를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미제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조선에 틀고앉아 무모한 군사적대결망동에 매달린다면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7월 14일
판 문 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또다시 대조선《제재결의》를 조작해내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망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전대미문의 《초강도제재결의》를 조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에 이어 련일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를 걸고드는 악담을 늘어놓는 한편 추종세력들과 함께 반공화국제재분위기조성을 위한 《공동성명》발표놀음을 벌리고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새로운 《제재결의》초안을 내돌리면서 이번에는 절충이 없이 《표결》에 붙이겠다느니 뭐니 하고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미국이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 《제재결의》채택놀음은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로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로 떠민 저들의 죄과를 가리우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극악무도한 속심의 발로이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장장 반세기이상 우리에게 가해오는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우리는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그 심장부를 타격하여 일거에 괴멸시켜버릴 의지와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우리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고 심사숙고할 대신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매여달리는것은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존엄높은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

만약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전쟁로병의 친혈육이 되여

우리의 생활은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아름다운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선교구역 강안1동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김종희로인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찾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병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와 만난 김종희로인의 말에 의하면 아빠트적으로 자기 집만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집은 없다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동의 일군들과 주민들은 물론 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쟁로병과 한식솔이 되여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고있는것이다.

한두해도 아니고 지난 여러해동안 김종희로인의 친딸, 친자식이 되여준 그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선교구역종합식당 강안청량음료점 책임자 정정희, 당세포위원장 정미란 그리고 문명희, 김정희, 리선희동무를 비롯한 봉사자들도 있다.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은인들인 전쟁로병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

이것은 정정희동무만이 아닌 모든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로병의 건강과 생활문제는 제일가는 관심사로 되고있다.

이곳 봉사자들은 당에서 아끼고 내세워주는 나라의 보배들인 전쟁로병들을 돌봐주는것은 새 세대들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하면서 명절들과 생일은 물론 때없이 찾아와 다심한 정을 기울이군 한다.

자기들의 일터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환하게 꾸리고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드바쁜 속에서도 그들의 가슴가슴은 늘 김종희로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있었다.

김종희로인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며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를 일일이 알아보고 자기들이 거둔 성과도 이야기해주면서 전쟁로병을 늘 기쁘게 해주는 이곳 봉사자들의 성의는 참으로 뜨거운것이였다.

얼마전에도 미꾸라지료리를 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그들이 제22차 태양절료리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식을 안고 찾아와 웃음꽃을 피울 때 김종희로인은 자기 일처럼 또 얼마나 기뻐했던가.

후에 안 일이지만 그들은 김종희로인뿐아니라 구역안의 10여명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생활화, 정상화해나가고있었다.

제 하나의 편안과 행복보다도 나라를 위할줄 아는 그들의 애국의 마음은 두툼한 원군일지에도 그대로 깃들어있었다.

누가 보건말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그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이들의 진정에 떠받들려 김종희로인은 80살이 넘은 오늘에도 건강한 몸으로 지내고있다.

그들만이 아니다.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 강안공업품상점 문시숙, 무진공업품상점 리진옥, 선교구역 강안소학교 교원 송혜영동무와 선교구역종합식당의 일군들도 전쟁로병의 친혈육이 되여주고있었다.

어머니당과 숨결을 같이하며 생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는 사람들,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일심의 대가정에 웃음꽃을 더해주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 온 나라에는 미덕의 향기가 차넘치는것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해님의 축복속에 더 활짝 꽃펴나는 재능동이들의 별천지

한없이 따사로운 후대사랑으로 강성조선의 미래를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상유치원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5년이 되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제일 좋은것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드시여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경상유치원은 전국의 본보기유치원으로, 세계적인 음악신동들을 배출한 종합적인 조기음악교육기지로 명성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주체101(2012)년 5월에 이어 7월 14일 또다시 경상유치원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펴고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아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이곳 일군들과 교양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상유치원에서 음악신동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치하하시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과 유치원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아이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내세워주시려는 친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은 갖가지 유희기재들과 아동도서들, 해마다 보내주시는 물고기와 과일, 식료품들에도 뜨겁게 어리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바쳐온 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난 5년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계발이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들은 유치원의 종합수업을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시범화하고 어린이교육지원프로그람 《신비경》을 개발도입함으로써 교육교양사업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일군들과 교양원들은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고 교수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어린이들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상유치원의 어린이지능교육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며 전국의 유치원들에 일반화할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유치원에서는 음악적감수성이 뛰여난 어린이들을 선발하고 창조적인 교수수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수많은 음악신동들을 키워냈다.

이 과정에 훌륭한 피아노연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국제무대들에서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래운 최지예, 한수려, 홍수련, 정영주를 비롯한 국제콩클수상자들이 배출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신 5돐을 뜻깊게 맞이하며 이곳 일군들과 교양원들, 어린이들은 이 나라 천만부모의 정을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행복의 노래무대에 담아 펼쳐놓았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축복속에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행복동이들의 별천지 경상유치원과 더불어 위대한 후대사랑의 찬가는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화성-14》형대륙간탄도로케트의 성공적발사를 둘러싼 격동과 환희, 충격과 공포의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도이췰란드를 행각한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이른바 《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일명 《신베를린선언》이라고 자칭하는 이 《평화구상》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리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립장들이 담겨져있는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평화의 미명하에 늘어놓은 전반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같은 궤변들이 렬거되여있어 세인의 개탄을 자아내고있다.

노닥노닥 기워도 마누라장옷이라고 그럴듯 한 포장을 씌웠지만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한반도평화구상》의 실체를 파헤쳐보자.

잘못된 출발, 엇나간 방향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대북정책》구상이라는것을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도이췰란드 쾨르버재단의 초청으로 옛 베를린시청에서 연설하면서 《5대대북정책방향》과 《4대대북제안》이 담겨진 이른바 《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것을 내놓았던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그 어떤 구상이 있다면 왜 하필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앞에서 밝혔는가. 금수도 자기 둥지를 잊지 못한다는데 제 나라, 제 민족보다 타국과 이방인이 그렇게도 더 좋단 말인가.

이에 대해 남조선당국은 주요20개국수뇌자회의가 진행되는 베를린에서 《대북정책》구상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느니, 쾨르버재단의 초청연설은 주요국가수반들이 외교안보분야의 정책립장들을 밝혀온 권위있는 무대라느니 하고 호들갑을 떨어대고있다. 이야말로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외세에게 의존하여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사대적근성의 발로이고 외세의 지지를 받아 몸값을 올려보려는 천박한 사고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에는 미국에 달려가 상전으로부터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고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이더니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땅 한복판에까지 찾아가 《신베를린선언》이니 뭐니 하며 지지를 구걸한 현 집권자의 행태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묻건대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에 실지로 관심이 있고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대상이 과연 그 어느 외국인인가 아니면 조선민족자신인가.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민족자신이 주인이 되여 풀어나가야 할 그처럼 중대한 문제를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앞에서 늘어놓는것 자체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도이췰란드식 《통일경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도 이 나라가 조선반도통일의 표본이라도 되는듯이 억설을 늘어놓은것이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도이췰란드식 통일이란 다름아닌 전형적인 《흡수통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우리 나라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겠다는것을 선포한것이나 같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는것이나 다름없다.

북남수뇌분들이 합의채택한 민족공동의 선언들에서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 기초우에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나갈데 대하여 확약하였다는것을 그래 남조선당국자는 모른단 말인가.

이렇듯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언동을 일삼으면서 《북붕괴나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침발린 소리나 늘어놓는다고 믿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는 베를린에서 하루아침에 장벽이 무너지고 서도이췰란드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진것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러한 《기적》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고대하지만 그야말로 노루잠에 개꿈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외세가 조선반도에 쌓아놓은 분렬의 장벽쯤은 단숨에 밀어버릴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는 우리 공화국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남수뇌분들이 온 민족앞에 확약한 조국통일의 리정표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절대불변의 지침으로 여기고있기에 그를 존중하고 실천해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의연히 외세의 턱밑에 붙어 쓰레기장에 처넣어 마땅한 《흡수통일》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 한다면 만회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임을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남의 나라의 통일경험을 운운하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에 밝혀진 평화와 통일의 진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구현하는 길로 나와야 할것이다.

적반하장의 《평화》타령

남조선집권자가 《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제일 많이 입에 올린것이 《평화》라는 단어이다. 남들이 듣기에는 마치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것 같지만 따져보면 벡도 모르고 침통빼드는 얼치기의생을 방불케 한다.

남조선당국자는 이번에 조선반도가 직면하고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이며 우리의 핵폐기야말로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는듯이 떠들어댔다. 지어 내외가 경탄하는 우리의 《화성-14》형의 성공적인 발사를 걸고들며 《무모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줴치는가 하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비핵화》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이라느니, 북이 핵《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느니 하고 큰소리를 늘어댔다.

이야말로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도발행위와 핵전쟁위협, 그에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호전세력의 군사적망동이 극단적인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이라는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지만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강탈하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의 길을 가로막으며 우리 제도를 완전히 붕괴말살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추종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선군의 총대를 더욱 굳건히 틀어쥐고 최강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는데 국력을 총집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도 평화에 대하여 떠들기 좋아하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집권한 이후에도 사태는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긴장의 최극단으로 치닫고있다.

무려 두달동안이나 강행되여온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막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이 기어들어 련합해상훈련이니 뭐니 하고 미친듯이 돌아치고 핵전략폭격기편대가 군사분계선과 린접한 남조선상공에까지 날아들어 사상 전례가 없는 실전투하훈련까지 벌려놓고있다. 얼마전 미국을 행각하였을 때는 상전에게 재래식 및 핵전략수단들을 포함한 《확장억제》제공을 구걸하고 우리의 핵과 미싸일을 《교란》, 《파괴》하기 위한 무장장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한다는것을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어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기정사실화하였으며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들여 미국의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핵보유를 걸고들며 《북핵폐기》를 조선반도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는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며 사실상 외세와 공조하여 위험천만한 핵화교란행위에 계속 매달리겠다는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이미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는 립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우리의 핵은 호혜적이고 선의적인 상대라면 그 누구에게도 결코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동족과 손잡고 관계개선과 통일의 동반자로 나선다면 우리의 핵을 두려워하고 문제시할 리유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심각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한사코 걸고드는것은 결국 저들자신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북남관계를 통일지향적인 민족내부관계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에게 지는가 하는 대결적관계로 보고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한미량국이 북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했다.》느니, 우리가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체제구축》에 나설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가소롭게 놀아대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한사코 뒤다리를 잡아당겨온 남조선위정자들이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하게 된 오늘에 와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에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고아대고있는것은 누가 보기에도 철면피하고 추루하다.

미국본토에 공지를 틀고있는 침략자 미제의 숨통까지도 타격할수 있게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우리의 자위적핵무장력은 세계정치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오고있으며 오늘날 조선반도평화보장의 조건과 가능성도, 평화협정체결의 분위기와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다는것을 괴롭더라도 인정해야 한다.

오늘날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제거해야 할것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이며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고 침략적인 핵전쟁위협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조선반도평화보장의 보검인 동족의 핵을 폐기시켜보겠다고 무모하게 놀아대기보다는 미국의 천만부당한 핵전쟁위협을 종식시키고 온갖 침략장비들을 남조선에서 철폐할데 대하여 요구하는것이 자립하며 당당한 오늘의 겨레의 호응과 박수를 받을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주는 선의의 충고이다.

언행상반의 대화협력타령

지금 남조선당국은 현 집권자가 발표한 《한반도평화구상》의 골자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이룩하자는것이라고 뭐니 하면서 당장 그 무슨 실천적조치라도 취할듯이 여론몰이를 하고있다.

한편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올바른 여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만날수 있다.》,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면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상태를 전환시킬 대화에 나설것이다.》등으로 현 집권자의 호언장담을 련일 광고해대고있다.

하지만 날을 도모르면 활개짓만 한다고 소리만 요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대화니, 협력이니 하며 당장 일을 칠것처럼 떠들지만 다름아닌 그앞에 붙어있는 《올바른 여건》이요, 《적절한 조건》이요 하는 딱지들이 대화타령에 숨겨진 어지러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보이고있다.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여건》이란 다름아닌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것이고 《적절한 조건》이란 대북강경압박책동을 주장하는 미국이 북남대화와 협력을 승인한 상태여야 한다는것이다. 결국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며 귀맛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상전과 손발을 맞추어 우리의 핵폐기를 유도하고 압박하는데 선차적인 관심과 목적을 두고있으며 대화도 북남관계도 여기에 복종시키려 한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전제조건있는 대화제안》은 보수《정권》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것으로서 《기대이하》이며 《북에 받으라고 한 제안이 아니다.》라는 강한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실지로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대화제안놀음의 리면에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보려고 기승을 부려댐으로써 자기의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부터 우리의 핵심지점들을 타격하는 《평양타격동영상》을 만들어 내돌리고 필요하면 《참수작전》도 불사하겠다는 흉납 못할 망발까지 공공연히 줴쳐대였는가 하면 주요20개국수뇌자회의에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인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였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수반들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북에 더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다못해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느지 않기를 바란다.》느니, 《마지막기회》라느니 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수작질도 꺼리낌없이 해대였다.

앞에서는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고립질식시키기 위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매달리는 이러한 망동은 《대결있는 대화》를 줴쳐대며 미쳐날뛰였던 리명박, 박근혜역도들을 방불케 하고있다. 상대방을 공공연히 모독하고 신뢰가 아니라 분노심을 촉발시키는 행위를 일삼으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추태로 상전의 눈에 들고 환심은 살수 있을지언정 어떻게 대화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전제조건있는 관계개선이란 사실상 현 북남대결을 지속하고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소리로 들릴뿐이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란 눈을 뻔히 뜨고 내뱉는 잠꼬대처럼 여겨질뿐이다.

사실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하여 말한다면 할 말은 우리에게 더 많다. 남조선의 현 당국이 전임자들과 달리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금껏 미국에 추종하여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책동에 가담해온 죄행부터 똑바로 반성하고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진실로 충실하여 동족과 끝까지 손잡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전환, 립장전환이 없다면 그 어떤 언약도 빛좋은 개살구일뿐이며 새로운 실천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넣고 겨레의 지탄을 받은 선임자들의 비참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처신을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남조선집권자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정치, 군사적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느니, 《쉬운것부터 시작해나가자.》느니 하면서 《리산가족》상봉계획와 체육교류, 민간급교류협력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분렬의 아픔을 가시고 동족간에 혈연적, 정서적뉴대감과 민족적공통성을 되살리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된 우리의 립장이다.

이때문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적대적망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여온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때에도 우리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사업을 주동적으로 제의하고 실현시키였으며 체육문화교류의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급교류와 래왕의 길이 완전히 끊기고 6.15시대의 옥동자라고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경제협력사업이 완전히 차단된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전적으로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지금도 북남사이의 래왕과 교류의 길을 가로막고있는 《5.24조치》는 버젓이 존재하고있다. 입만 열면 인도주의문제해결을 떠드는 남조선당국자들이지만 박근혜역적패당의 반인륜적인 랍치만행으로 자기 부모, 친척들과 생리별당하고 불행과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있는 12명의 우리 녀성공민들이나 김련희녀성의 송환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고있다.

사실들은 가장 첨예한 적대적관계에 놓여있는 북남사이에 대결구도의 청산이라는 근본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교류나 협력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일방의 선의와 노력으로 한두번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고 몇건의 비정치적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된다고 해서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나 전쟁의 위협이 덜어지지도 않는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있다.

하기에 오늘 겨레가 한결같이 요구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적개선이며 새로운 통일시대의 개척이다.

반통일의 적폐를 가시고 제2의 6.15시대로 가는 로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선차적인 문제로 들고나온 비정치적교류협력이라는것은 북남사이에 대결상태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론의되고 실현되게 되여있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자가 굳이 남의 나라땅에까지 가서 비정치적교류협력을 앞세워야 한다고 력설하였지만 사실상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문제해결을 위해 자기자신이 떠맡아야 할 중대한 책무를 회피하려는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말한것처럼 모든 일에서는 시작이 중요하다. 특히 친미보수《정권》하에서 격화된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꼬인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려정에서 첫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북남관계개선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아나서는 친미보수세력의 눈치나 보아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겨레의 뜻과 남녘초불민심의 지향을 제대로 실현해낼수 없다.

우리는 이미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나아갈 립장을 거듭 천명하고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획기적전기를 열어나가자고 제안한바 있다.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의존의 길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동족이 내민 손을 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올바른 길에 들어서야 할것이다.

조 남 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고려약처방의 과학화실현에 바쳐온 삶의 자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인민들이 오랜 기간 써온 고려약을 깊이 연구하고 많이 생산하여 치료예방사업에 널리 리용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취재길에서 만났던 락랑구역 승리2동에서 사는 한 녀성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렸다.

10년전 40대 초엽의 녀성은 여러 질병에 걸려 몹시 앓았다. 일정한 시일이 흘러 당뇨병까지 합병된 녀성은 한 의료일군으로부터 해당한 합성약을 쓸데 대한 권의를 받았다.

어느날 녀성은 당시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 보약학강좌에서 교원으로 일하던 장금련동무를 만났다. 그에게서 고려약으로도 얼마든지 병을 고칠수 있다는 대답을 들은 녀성의 심리는 착잡했다.

고려약은 치료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것으로 알고있었던 그로서는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며칠전에 그는 해당 의료일군으로부터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아 당뇨병이 심해지면 한생 인슐린을 맞으며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던것이다.

그후 다시금 장금련동무를 만나 여러가지 질병들이 합병된 경우 합성약에 비해 고려약에 의한 치료효과가 더 좋을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생각을 달리하였다. 그렇게 되여 치료는 시작되였다.

장금련동무의 처방에 따라 고려약을 쓴 녀성의 검사소견들은 얼마후 정상으로 되였다.

그로부터 몇해동안 질병의 특성과 체질 등을 고려하여 장금련동무가 처방을 낸 고려약을 쓴 녀성의 건강상태는 더없이 좋아졌다.

녀성은 이야기의 뒤끝에 지난 5월 다시금 나타났던 당뇨병증상이 록미환을 쓰고 개선될수 있게 된데는 수년동안 고려약을 먹으면서 건강을 원만히 회복한데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껏 통괄질병치료에 좋은 보약으로 일러온 록미환이 당뇨병치료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 보약학강좌에 들린 우리의 감동은 컸다.

강좌에서는 오랜 세월 어혈과 변비치료에 국한되여있었던 도인승기탕이 뇌출혈후유증을 개선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며 부자리중환이 위분비기능과 운동을 항진시킨다는것을 밝혔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아지고있는 전신칸디다증환자들에게 십전대보환을 같이 쓰면 합성약물에만 의존하던 종전에 비해 치료효률을 훨씬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볼수록 세세년년 빛을 뿌리는 우리의 고려약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달아올랐다. 그와 함께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해 바쳐온 한 교육자의 남모르는 자욱이 헤아려져 우리는 취재를 이어나갔다.

최근 사회발전과 더불어 질병구성상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새로운 약물들이 수많이 개발되고있다. 이것은 어제날의 명약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 가치를 잃을수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하다면 퍼그나 오래전에 나온것으로 하여 현대질병과의 호상관계를 밝히지 못한 우리의 전통약물도 언젠가는 세월의 락엽속에 묻히게 될수 있지 않겠는가.

어느날 이런 생각이 불쑥 든 장금련동무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에게 있어서 록미환, 십전대보환을 비롯한 보약은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물이기 전에 대를 이어 전해가야 할 민족의 넋으로 자리잡혀있었다.

더우기 보약학강좌는 민족의 학을 중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1970년대말에 평양의학대학(당시) 고려의학부에 새로 나오지 않았는가.

1990년대 중엽 대학의 박사원을 졸업한 장금련동무는 보약학강좌 교원이 되였다.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리용해온 전통약물과 현대질병과의 호상관계를 밝히는 일은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았다.

수많은 약재들의 맛과 성질 등을 파악한데 이어 여러 종류의 약재들을 배합할 때 나타내는 약리작용과 그것이 현대질병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것을 밝히자니 기초실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이와 함께 같은 질병이라도 매 사람에게 고유한 처방이 무엇이며 한사람에게서 일정한 시기를 두고 발생하는 같은 질병도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하는 연구사업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일군들인 리승철, 리학수동무들과 교수 박사 김서경동무를 비롯한 고려의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장금련동무를 도와 지혜와 열정을 합쳤다.

하여 그는 방대한 연구과제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우리 민족의 전통약물이 현대질병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혔다. 또한 고려약은 매 사람들의 체질에 맞게 쓰면 그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강좌의 교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는 우리 민족의 전통약물인 고려약의 우수성을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었다.

인간의 삶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는 민족의 넋이 어린 전통약물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여년동안 남모르는 자욱을 새겨온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장금련동무의 모습을 통해 이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본사기자 방경찬

보답의 마음안고 걷는 길

강동군 림경로동자구 15인민반 윤석동무의 가정에서

당과 수령이 안겨준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애국의 한마음을 아낌없이 바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애국충정의 마음안고 보답의 한길을 걷고있는 사람들속에는 강동군 림경로동자구 1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윤석동무의 가정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당의 은정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강동군송배전소 책임기사로 일하는 윤석동무의 가정은 누구보다도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많이 받아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해온 윤석동무의 아버지는 림종을 앞둔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을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백옥같은 충정을 다해 높이 받들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당부하였다.

윤석동무와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당부를 언제나 명심하고 맡은 초소들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왔다.

그러던 윤석동무의 가정에 경사가 났다. 딸인 윤정아가 모범소년단원이 되여 당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게 되었던것이다. 그날 윤석동무는 눈시울을 적시며 가족들에게 말했다.

《대를 이어 받아안는 우리 당의 고마운 은덕을 한시도 잊지 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드는 길에 한몸 다 바쳐야 한다.》

그때로부터 윤석동무와 가족은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더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기 위해 남모르는 땀과 열정을 바쳐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집으로 퇴근한 윤석동무는 안해와 정아가 붉은 천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것을 보게 되였다.

안해의 이야기를 통해 정아가 붉은기를 만들어가지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가겠다고 했다는것을 알게 된 윤석동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올랐다. 이렇게 보답의 첫걸음을 뗀 정아는 부모와 함께 해마다 두차례씩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군 하였다. 그리고 청년운동사적관이 건설되던 나날에도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답의 마음안고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는 강동군 주봉고급중학교 학생 윤정아에게 또다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실줄 어이 알았으랴.

온 가정이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온밤 잠들줄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가정은 보답의 이 길을 끝까지 가고 또 가겠습니다.)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겨안고 윤석동무의 가정은 오늘도 애국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훌륭한 일군들입니다

최근에 우리 도서관에서는 개건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건물의 외부와 함께 여러개의 서고와 열람홀 등을 갖춘 내부가 현대적미감이 나게 훌륭히 꾸려졌으며 령대지구의 주민들은 물론 출장손님들까지도 즐겨찾는 곳이 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도서관관리운영사업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선 령대판통 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사실 몇명 안되는 도서관종업원들로 개건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걸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판통일군들이 발을 걷고나섰습니다. 강력한 건설력량을 조직하고 자재보장대책까지 빈틈없이 세운 일군들은 공사가 중단없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시작된지 몇달 안되는 기간에 번듯하게 일떠서게 하였습니다. 그후에도 일군들은 도서관에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일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내일내일 가리지 않고 열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실천가형의 일군들만이 할수 있는것입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실천행동으로 당의 원대한 구상실현에 발벗고나서는 이런 일군들을 저는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은산군 령대도서관 관장 조 순 희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16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중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 압록강체육단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여러 몸무게급유술대항경기가 진행되며 송구경기관에서는 송구 1급 녀자훈련경기가 있게 된다.

청춘거리 경경기관에서는 4.25체육단, 기관차체육단, 평양체육단, 상업성체육단, 조선체육대학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는 판력망기술혁신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7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8일에 지자기권의 심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여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핵무장화한다는것을 공식 발표한 60년이 되였다.

알려진것처럼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의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다음해 1월 29일에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는것을 정식 발표하였다.

이것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참화를 들씌운 핵전범국인 미국이 전체 조선민족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삼천리 조국강토를 무서운 핵전쟁터로 만들겠다는것을 내외에 공공연히 선포한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그후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각종 핵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여 1980년대 중엽까지 남조선을 1 720여개의 핵무기들이 들어찬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락시켰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타격대상으로 규정하고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15》를 비롯한 각종 북침각본을 부단히 갱신완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위험천만한 전쟁불장난소동을 해마다 벌려놓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핵위협과 공갈을 가해왔다.

지금도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핵전략자산들을 수시로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비극을 강요한것도 부족하여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발광하는 극악무도한 침략자이며 전쟁광신자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사실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 공화국과 같이 지난 세기 5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그처럼 오랜 기간 미국의 집요하고 강도높은 핵위협을 받고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횡포무도한 핵위협공갈에 대처하여 우리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은 천만번 정당하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드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서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의 북침핵전쟁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파렴치한 궤변이다.

우리의 핵은 우리 민족에게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발광하는 미치광이들에게 종국적파멸을 안기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핵이며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민족만대의 재보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존엄높은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으로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광란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얼마전 내외를 진감시킨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악의 제국인 미국의 최후멸망을 선고하는 주체조선의 불패성이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을 그 어떤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선언한 특대사변이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세계정치구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으며 미제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국은 세상이 달라진 오늘에 와서까지도 《북핵,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도발책동에 무질없이 매달릴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온 저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쟁장비들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력대로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북침전초기지로 내맡기고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왔다.

지금 남조선의 현 당국도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일삼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정권》의 비참한 말로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국을 《은인》으로 섬기고 동족의 핵억제력을 한사코 걸고들며 반공화국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책동에 편승하는것이 민족의 리익과 겨레의 운명을 외세에게 섬겨바치는 쓸개빠진 민족반역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수치스러운 외세추종, 동족대결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위기를 제거하고 자주와 평화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며 그 추동력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에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미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날로 엄중해지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북침핵전쟁책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7월 15일

평 양

로동자들에 대한 탄압책동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남조선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가 6일 서울에서 로동자들의 집회와 롱성을 가로막는 괴뢰경찰과 종로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주변에서 하기로 되여있었지만 파쑈경찰당국은 로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로동3권 쟁취》라고 쓴 구호판을 들었다고 하여 가로막았다.

경찰의 탄압으로 로동자들은 청와대에서 떨어진 효자로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로동자들을 탄압하는 현 《정권》이 리명박, 박근혜《정권》과 다를바 없다는것을 청와대앞에서 직접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16일간 청와대앞에서 《비정규직법》, 《정리해고법》을 페기할것을 요구하여 투쟁한 롱성참가자들이 경찰의 폭행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면서 정당한 집회를 탄압하는 《정권》과 경찰의 행태는 더는 묵과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청와대가 탄압받는 로동자들을 외면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로동자들의 기본권리를 가로막는것은 직권람용이라고 규탄하였다.

《초불을 들어 미국을 쓸어버리겠다》

총련 청년단체일군들 담화 발표

총련 청년단체일군들이 최근 남조선에서 미국의 범죄적인 《싸드》배치책동을 반대하는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0일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의 《싸드》배치는 남조선을 철저히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미싸일방위체계의 전초기지로 만들며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한 책동이라고 규탄하였다.

재일본조선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운명을 롱락하려는 외세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결사반대하며 북과 남, 해외의 청년들과 련대련합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김현일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민중의 투쟁은 《싸드》배치반대를 넘어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썩을대로 썩은 친미보수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지적하였다.

재일본조선류학생들은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에 과감히 맞서 투쟁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열렬히 지지하며 침략자 미제를 치솟는 분노를 안고 견결히 단죄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남조선 각지에서 반미투쟁기운 고조

미국의 전쟁괴물, 재앙의 화근인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대중적인 반미, 반전평화운동으로 더욱 승화되고있다.

남조선도처에서 《싸드》배치철회, 북침핵전쟁연습중지를 요구하는 투쟁이 고조되고있는 속에 지난 6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의 주최로 《싸드》배치철회를 요구하는 범국민평화행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였다.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모여온 수천명의 군중은 《싸드》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동북아시아의 핵대결장으로 만든 미국의 죄행을 성토하였다.

그들은 《싸드》를 두고 망발을 해대는 미국대통령이 《싸드》를 당장 가져가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민주로총, 《청년민중의 꿈》, 참여련대를 비롯한 각계단체 성원들은 《싸드배치 철회》, 《기습반입한 장비 철거》, 《싸드배치를 강요하지 말라.》, 《초불을 들어 미국을 쓸어버리겠다.》 등 반미구호를 웨치며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띠잇기시위를 벌리였다.

격노한 군중은 《싸드》와 돈뭉치를 입에 문 트럼프의 낯짝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으며 반미투쟁기세를 올렸다.

력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을 포위한 이날의 투쟁은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국을 결코 용납치 않으려는 남녘민심의 적앙된 분노의 폭발이였다.

최근에 미국이 박근혜패당과 《싸드》 1기를 올해에 배치하고 다음해에 나머지 5기를 추가배치하기로 밀약하였던 초기합의내막이 공개된것은 남조선전역에서 반미항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 새로운 도화선으로 되고있다.

《싸드》배치지인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을 통해 《싸드》를 기어코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악을 쓰는 미국의 흉심을 까밝히며 침략무기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 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2차 평화회의를 가지고 《싸드》배치를 저지시키기 위한 보다 과감한 행동을 벌려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록색련합, 룡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싸드》배치를 통해 남조선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라는것이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폭로하였다.

문학계와 종교계도 미국이 《싸드》가 《북핵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지켜줄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오히려 민중을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고 규탄하면서 현 《정부》가 《싸드》문제를 똑바로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기를 격화시키고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전쟁괴물 《싸드》를 몰아내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없는 자주화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민중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친미보수정당

사대매국적인 보수정당의 해체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가 3일 《자유한국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반역보수정당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1 700만의 초불시민들이 박근혜《정권》과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달라질게요.》라는 구호를 내들고 전당대회라는것을 벌려놓는 추태를 부린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은 거짓말로 또다시 민중을 우롱하는짓이라고 단죄하였다.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온 《자유한국당》은 친일, 친미로 일관해온 정치세력이라고 그들은 성토하였다.

사대매국으로 이어져온것이 《자유한국당》의 력사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대매국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청산하는것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하였다.

날로 높아가는 보수야당에 대한 민중의 반대기운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괴뢰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여 매일 서울에 있는 이 당청사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고있다.

1일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 폭발》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13번째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자유한국당》은 자기 리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청년들의 삶, 민중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규탄하였다.

악폐중의 악폐인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대학생들의 삶이 나아질수 없으며 남조선의 안전한 미래도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친미친일사상이 골수에 찬 이 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 민중을 도와주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국정》롱락행위의 공범인 《자유한국당》은 민중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장 해체되여야 마땅하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 초불투쟁을 통해 청년들이 나서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오늘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의 반대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들은 이 당의 해체를 위해 대학생,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함께 투쟁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망해가는자들의 개싸움질

괴뢰보수정당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새 지도부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놀음을 벌리였다. 결과 《자유한국당》의 대표자리는 홍준표가, 《바른정당》의 대표자리는 리혜훈이 차지하였다.

보수야당들의 새 대표들이 선출되였지만 이것으로 보수진영의 위기가 수습되기는 고사하고 주도권쟁탈을 위한 싸움은 날로 더해만 가고있다. 이자들은 민심의 비난과 눈총을 받으면서도 저저마다 자기들을 그 무슨 《보수적통》, 《보수적자》로 광고하며 권력싸움에 더욱 몰두하고있다.

당권장악을 위한 치렬한 개싸움판에 《자유한국당》 대표감투를 쓴 홍준표는 최단시일내에 인사조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측근인물들을 당내 요직들에 편이여 들어앉히는가 하면 《혁신》의 간판밑에 친박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려 지지기반을 다질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에 친박계가 《자기 사람 심기를 한다.》, 《그대로 둘수 없다.》고 반발해나서고있지만 홍준표는 그것을 《혁신과정에 일어나는 잡음》으로 묵살해버리면서 계속 전횡을 부리고있다.

홍준표는 《바른정당》과의 세력권다툼에서도 우세를 차지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자는 《바른정당》을 와해시키고 이 당패거리들을 자기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배신의 상징》이니, 《자멸의 길》이니 하면서 류승민과 김무성을 비롯한 《바른정당》의 거물급인물들을 향해 련일 로골적인 협박을 들이대고있다.

홍준표의 이런 공세에 《바른정당》패거리들이 가만있을리 만무하다. 이자들은 《흡수통합》을 주장하는 홍준표의 정책으로써는 《보수의 혁신과 재건이 가능하지 않다.》고 투덜거리면서 저들만이 죽어가는 보수를 살릴수 있다고 고아대고있다. 심지어 《바른정당》것들은 저들이 주축이 되여 《자유한국당》을 끌어안을것이라고 하면서 홍준표가 보수의 몰락을 재촉하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보수진영의 주도권쟁탈을 노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추악한 개싸움은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한 놀음을 통해 더욱 격렬해지고있다.

홍준표역도는 다음해에 진행되게 되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구시장선거가 가장 상징적인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대구, 경상북도지역에서 보수의 궤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된 리혜훈도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을 장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특히 《바른정당》패거리들은 이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밀어내고 저들이 주도권을 장악할 심산밑에 《참보수》니 뭐니 하는 간판을 내걸고 당상층부가 총동원되여 거리에 떨쳐나와 민심을 꼬드기는 광대놀음을 벌릴것을 계획하고있다.

홍준표를 우두머리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리혜훈이 장악한 《바른정당》이 보수진영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개싸움을 벌리고있는 속에 이미전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하고있던 일부 친박계패거리들이 《보수의 가치를 지킬수 있는 새로운 우파정당》을 내온다고 고아대면서 또 하나의 보수정당을 조작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보수세력내부의 권력싸움이 다음해에 진행되게 되는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더욱 격화되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보수진영의 주도권장악을 위한 괴뢰보수패당의 역겨운 싸움질을 목격하며 남조선 각계층인민들은 조소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들은 괴뢰보수패당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력사의 퇴물들로서 《재건》이 아니라 당장 해체되고 매장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반보수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괴뢰보수패거리들이 반역정당해체를 주장하는 민심에 도전하면서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종국적멸망의 시각만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대륙의 통합을 다그칠것을 호소

리베리아대통령 엘렌 존슨 써리프가 4일 제29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대륙의 통합을 다그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장래발전을 위한 로정도를 밝힌 2063년 안건을 리행하고 대륙의 통합과정을 적극 추동하려면 아프리카동맹을 보다 효과적인 기구로 개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슬람교성지들을 보호할 립장 천명

요르단 공보담당국무상이 5일 이슬람교성지들을 보호할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최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동부꾸드스를 저들의것으로 만들어보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배격하는 결의를 채택한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이것은 꾸드스에 있는 이슬람교성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노력의 결과이라고 밝혔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이 꾸드스와 알 아크사사원주변에서 모든 란폭한 행위들과 활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슬람교성지들을 보호하는 투쟁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들불로 소동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뷰트군에서 7일 들불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있다. 들불로 8일현재 8.09㎢의 초원이 불타버리고 1만여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멸을 청하는 어리석은 망동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진막강한 위력에 기절초풍한 미국이 분별을 잃고 군사적도박에 더욱더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미국방성이 우리 공화국의 《도발》에 대처한 다양한 대응방안들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군사적공격안을 준비하였다고 요란스럽게 광고해댔다. 트럼프는 조선에 대한 《전략적인내시대는 끝났다.》, 《매우 강하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며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호전세력은 우리 공화국이 전략적조치를 취하면 군사적공격방안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제출될것이라고 희떠게 놀아댔다.

미국은 우리 나라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에 기겁하여 남조선호전광들과 련합탄도미싸일무력시위라는것까지 벌리며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이로써 미국은 침략자로서의 추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트럼프행정부는 《침략을 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는 넉두리를 늘어놓았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더욱 명백해진바와 같이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였다. 실제로는 불의적인 타격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음흉한 기도를 가리우려는 기만술책이였다.

핵을 내려놓고 저들에게 순종하면 살아갈수 있지만 핵을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나가면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날강도적론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에이브라함 링컨》호를 비롯한 니미쯔급핵항공모함들에 우리 나라의 전략적대상물들을 선제타격할수 있는 신형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할수 있도록 함전투체계를 개조하는 한편 정밀유도폭탄투하훈련도 강화하여 이동목표들에 대한 타격력을 증대시켜보려 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태평양해역에는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이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하여 기동전개되여있다. 상대방의 전략적대상물들에 대한 기습선제타격을 사명으로 하는 핵전략폭격기 《B－1B》편대가 수시로 남조선상공에 날아들고있다.

이러한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전략적지위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미국의 단말마적발악으로서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리성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핵전쟁도발을 걸어오지만 우리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조선군사적공격기도는 제손으로 제 숨통을 조이는 극히 어리석은 망동이다.

미전문가들이 트럼프에게 대조선선제공격은 무서운 보복을 초래하여 남조선과 일본을 페허로 만드는것은 물론 미본토까지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시간은 결코 미국편에 있는것이 아니므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것은 얼마전의 일이다. 전 미국가정보국 장관 제임스 클래퍼도 미국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조선선제타격론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다, 우리가 군사행동에 나서면 조선은 반사적으로 대응할것이다라고 아우성을 쳤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미치광이같은 군사적선택에 기꺼이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우리가 이번에 단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무진막강한 핵공격능력의 일대 과시로 된다.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이 남조선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본토를 핵조준경안에 집어넣고 적들이 조금이라도 움쩍한다면 즉시에 무자비한 징벌의 불세례를 들씌우겠다고 한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미집권세력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아메리카제국은 수치스러운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미국이 사상 최대의 재앙을 면하려거든 이제라도 주체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리 현 도

민심에 도전해나선자들의 패배

지난 2일 일본에서 도꾜도의회선거가 진행되였다.

도꾜도의회선거는 국회선거 다음가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정치에 큰 영향을 주는 수도에서의 지배권쟁탈전이기때문이다. 도꾜도의회에서 127개 의석중 57개 의석을 차지하고 제1당으로 있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 60명의 후보자들을 내세웠지만 야당들에게 밀리워 23개 의석밖에 따내지 못하였다.

올해 2월에 발표한 2017년 활동방향안에 《도꾜도의회선거 등의 선거들에서 승리하고 이것을 다음기 중의원선거에서의 승리로 이어갈것이다.》라고 호아박고 기세등등하여 날뛰던 자민당패거리들이 지금 풀이 꺾이여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다.

제1당의 자리는 지역정당인 《도민제일회》가 차지하였다.

여론들은 자민당의 력사적인 대참패라고 평하고있다.

문제는 어째서 여당인 자민당이 패배를 면할수 없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자민당이 도꾜민심을 완전히 잃었기때문이다.

최근년간 도꾜에서는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각종 악법들을 반대하는 시위투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안전보장관련법안을 국회 참의원에서 통과시키기 전이였던 2015년 8월 30일에는 12만명이, 9월 14일에는 4만 5 000명이 국회앞도로를 점거하고 《아베정권 퇴진》을 목청껏 웨치며 투쟁하였다. 당시 일본언론들은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개정을 반대하여 30만명이 들고일어나 시위투쟁을 벌린 후 처음으로 되는 큰 투쟁이라고 보도하였다.

일본당국의 주도하에 자민당이 국회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채택하고 조직범죄처벌법개정안을 가결할 때에도 숱한 도꾜도민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항의시위들을 벌렸다.

도꾜도민들은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려는 당국과 자민당의 시도도 반대배격해나서고있다.

일본집권자는 현행헌법시행 70년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헌법개악의 첫걸음을 내짚으려고 획책하고있다. 헌법개악이란 현행헌법의 9조를 수정하는것을 말한다.

현행헌법 9조 1항에는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되여있고 2항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륙해공군 및 그외의 어떤 전쟁무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전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여있다.

현행헌법 9조는 일본이 다시는 그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는것과 집단적자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담보한것이다.

그런데 현 일본집권자는 이 9조 1항에서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2항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려 하고있다.

이렇듯 헌법개악은 일본이 전후에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되찾고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법적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것이 도꾜도민들의 반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5월 헌법을 개악하려는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반대하여 도꾜에서만도 두차례의 대중적인 집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헌법개악을 계속 강행추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분노한 도꾜민심은 이번 도꾜도의회선거에서 야당후보자들에게 지지표를 던져주고 자민당에 대참패를 안기는것으로써 복수하였다.

이를 두고 일본의 어느 한 야당인물은 《헌법 9조를 수정하여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데 대해 도민들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베의 헌법개악움직임은 시초에 된서리를 맞았다.》고 말하였다.

이번 선거결과는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에 광분하면서 민심을 한사코 거역해나선다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지금 현 당국에 대한 지지률은 30%계선으로 떨어지고있다. 그를 막아보려고 일본집권층은 내각과 자민당에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유럽나라들을 행각하여 외교실적을 올린다 어쩐다 하며 부산소동을 피우고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국부적인 인사이동이나 외교실적이 자민당에 등을 돌려댄 민심을 다시 돌려세울수 있는 출로로는 될수 없다고 보고있다.

일본국내에서는 자민당이 여당으로서의 체면을 세우고 정치적잔명을 더 부지하려면 이제라도 헌법개악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일본당국이 내외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악을 계속 추구한다면 다음해에 있게 될 중의원선거에서도 도꾜도의회선거 결과를 되풀이하게 될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박 예 경

ㄱ-71111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